

문재인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출범...사실상 대선출정식?

석학·정계인사, 지지자 등 6~700여명 모여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어야...제가 해내겠다"

등록 : 2016-10-06 18:37 수정 : 2016-10-07 10:36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선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가칭)' 창립 준비 심포지엄에 참석,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6.10.06 성동훈 기자 zenism@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뜻을 함께 하는 정책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가칭)'의 6일 창립 심포지엄에 6~700여명의 석학과 정계 인사, 지지자들이 모여 사실상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심포지엄은 문재인 전 대표의 현실인식과 비전에 공감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조윤제 연구소장의 개회사, 박승 자문위원장의 축사 후 이어진 문 전 대표의 기조연설 중간에도 지지자들은 문 전 대표의 '동의하시냐'는 물음에 환호하는가하면 '문재인'을 연호하며 호응했다.

문 전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많은 분들의 기대 속에 새로운 '정책 공간'이 출범하게 됐다. 학계에서 크게 활약하고 계신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주셨는데, 원로·중진·신진 학자들이 골고루 참여하고 계시며 진보·보수·중도의 구분 없이 각 분야에서 실력 있는 분들이 두루 참여하셨다"며 "이제 우리의 수권능력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획기적인 대안과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확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저는 그렇게 해내겠다. 앞으로 그동안 준비하고 다듬어온 다양한 정책과 비전들을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고 검증하면서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안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국민이 돈 버는 성장의 시대'로 가기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 해치는 반칙·특권 뿌리 뽑기 △양질 일자리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 △보편복지 통한 출산지원정책 △입법권·행정권·재정권 등 과감한 지역 분권 등 대선 후보 공약을 연상케 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선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가칭)' 창립 준비 심포지엄에 자리해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6.10.06 성동훈 기자 zenism@focus.kr

기조연설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도 문 전 대표는 지지자들이 가져온 본인의 저서에 사인을 하거나 함께 사진을 찍고 직접 찾아가 악수를 건네는 등 그들을 챙기는데 여념이 없었다.

행사에 참여한 측근들은 문 전 대표의 이번 기조연설에 대해 "문 전 대표가 원래 지닌 부드러움에 더해 단호해진 모습도 보인다"며 "문 전 대표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수준이 향상돼 옆에서 정책적으로 돕는 일도 쉽지 않다"고 한마디씩 보태기도 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의 사회아래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국민성장 시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안보와 성장,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 시간을 가진 뒤,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7명 분과 위원장이 종합토론을 벌였다.

'정책공간 국민성장'은 1차로 전국에서 약 500여명의 교수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연 내에는 1000여명 이상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정책대안그룹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이날 외빈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더민주 통합위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건호씨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기조발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정권교체로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이 무슨 세상인가, 저 문재인이 바라보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려 하고 오늘 계기를 통해 말씀드린 게 그 중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전 대표의 이번 싱크탱크 창립을 내년 대선의 정책경쟁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전 대표는 행사 중 자원봉사활동에 함께 하기 위해 울산 태풍 피해 복구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유지 기자 sdyouji@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프린트

취소